

# 취준생 등친 ‘달콤한 거짓말’... 취업사기 극성

### 대기업·미화원 취직 미끼 돈 가로채... 20~30대 피해 속출 법원, 잇따라 실형 선고... 일자리 척박한 광주·전남 주의보

#1. 지난해 8월 순천의 A씨는 “이중사촌 동생이 여수산단 대기업 부사장으로 있는데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며 인사비를 요구한 이모(68)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씨는 돈만 가로채고는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이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구세 등에서도 같은 수법의 사기를 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2. 광주에 사는 B씨는 올해 1월 인터넷 생활정보 사이트에서 홍보인쇄물 제작·배포 업무 구인공고를 보고 광고대행업체를 찾았다. 업체 대표는 신용보증금으로 100만원을 먼저 내면 채용후 매달 월급과 함께 되돌려주겠다고 보증금을 요구했다. B씨는 그 말을 믿고 보증금 100만원을 줬다가 떼였다.

#3. C씨는 지인으로부터 ‘군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며 최모(66)씨를 소개 받았다. C씨는 발이 넓은 최씨에게 28살 조카의 취업을 부탁했고, 최씨는 “내가 화순군청 공무원으로 퇴직해 화순에서는 무슨 일든 할 수 있다. 내 동생도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켰다”며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1년 반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뤄 최씨를 고소했다. 알고 보니 최씨는 10년 넘게 변변한 직업이 없었고,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어서일까, 취업난에 허우적거리는 20~30대 젊은 층이 ‘뻔히 보이는’ 취업 사기에 잇따라 희생되고 있다.

일자리가 척박한 광주·전남의 경제현실 탓인지 ‘대기업·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사기꾼의 핏에 넘어가 돈을 때이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환경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C씨 등 2명에게 3000만원을 받아 갹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2012년 7월에도 화순에 살던 60대 남성을 상대로 “당신 아들을 군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키려면 뭇돈을 써야 하니 미리 달라”며 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도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0·무직)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등 장년층 5명에게 접근해 “자녀를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면서 2억2000여만원을 받아 갹간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도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고소 사건 중 상당수가 취업사기라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7~9월 3개월간 취업 브로커를 집중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간 광주·전남지역 구직자 수는 2만7685명(광주 1만5263명, 전남 1만2422명)이었다. 이 중 20~39세의 청년구직자는 광주 6891명(20~29세 3892명, 30~39세 2999명), 전남 4815명(20~29세 2846명, 30~39세 1969명)으로, 광주·전남지역 청년 1만1700명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통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통학차서 의식 잃고 쓰러진 장애 초등생 67일만에 숨져

#### 유족 고소...경찰, 과실 여부 조사

지난 4월 6일 통학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장애 초등학생이 67일만인 지난 12일 숨졌다. 경찰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학교 측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다.

12일 오전 11시께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광주은행학교 학생 박모(7)군이 숨졌다. 앞서 지난 4월 6일 오전 8시께 집앞(신창동)에서 통학버스에 오른 박군은 30여분 지나 차량이 학교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통학버스에 탑승한 보조교사에게 발견 당시 박군은 고개가 앞으로 꺾여 기도가 막히고 심정지 상태였고, 보건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족은 박군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달 24일 “아이기 지적장애가 있어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데다, 희귀병이 있어 목조차 가늠 수 없다는 것을 학교 측이 알고 있는데도 보호 소홀로 중상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아들의 반대편 뒷좌석에 앉아 있던 차량 실무사(보조교사)가 아이가 10여차례나 울어 주변 친구들이 쳐다봤는데도 통화와 핸드폰 검색만 열중했다. 고개가 젓혀진 아이의 머리만 제때 올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차량 블랙박스에 고개가 꼭 꺾여진 박군의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모습이 담겼다. 학교 측은 그러나 “장애학생 관리에 과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학가는 기말고사 열풍 중 극심한 취업난과 기말 고사료 요충 대학 도서관은 빈 자리를 찾기 힘들다. 13일 전남대학교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이 시험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5월단체, 문체부 장관 면담 성과없이 끝나

## 옛 도청 총탄 자국 복원 입장차만 확인

5·18단체가 13일 옛 전남도청의 5·18 시민군 항쟁지 복원을 요구하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면담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영대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옛 전남도청 본관을 리모델링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의 내·외벽 총탄 자국과 상황실, 방송실 복원 요구에 김 장관은 ‘다른 이해관계자와 이야기해 본 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5·18

시민군 항쟁지 복원에 대한 문체부 관점이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5·18 시민군의 상황실과 방송실을 없애고도 문체부 측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이 5·18 시민군 흔적 지우기 논란에 대해 ‘ 그동안 보고받은 내용이 없고 이제 이야기를 보고 받기 시작했다. 총탄 흔적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며 “문체부는 민

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된 옛 전남도청을 ‘5·18 심장부’가 아닌 전당의 부속시설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 5월단체 측은 차명석 5·18 재단 이사장, 김 상임이사, 정춘식 5·18민주공공자 유족회장 등 5월 3단체장이, 문체부 측은 김 장관,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5·18 역사왜곡대책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회의에서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옛 전남도청 원형 훼손 논란이 5월단체와 전당 관리·운영 주무부처 장관의 면담에서도 실마리를 찾기 못하면서 민주평화교류원의 상반기 개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섬 인권 개선...신안경찰서 신설 요청”

### 이낙연 지사 ‘여교사 성폭행 사건’ 사과...대책 마련 약속 김희재 광주지검장 오늘 현장 확인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섬 인권 개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재 광주지검장은 수사를 맡은 목포지청과 실시간 지휘 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13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사과한 뒤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섬에서 인권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섬은 격리된 곳이다. 격리됐기 때문에 매력적인 곳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며 “섬의 취약성을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기관과 함께 꼼꼼히 추진하겠다. 특히 섬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지 않도록 정부 및 관련 당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신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서가 아직 없다”면서 “올해 전남지방경찰청

은 행정자치부에 신안경찰서 신설을 요청했다. 내년엔 신안경찰서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경찰서 신설은 몸서리 떨지만 과제의 전부는 아니다”며 “교육청과 경찰청, 전남도의 협의를 통해 인권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목포지청과 실시간 수사 지휘 및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김희재 광주지검장과 김국일 목포지청장이 14일 신안 현장 현장을 찾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지난 10일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지상)로 초등학교 학부모 박모(49)씨와 김모(38)씨, 주민 이모(34)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 전남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관사 78% CCTV 미설치

전남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관사 10곳 중 7곳 이상은 CCTV(폐쇄회로)조차 설치되지 않는 등 사실상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직원 홀로 사는 관사에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안팎에선 인사제도 개선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보건진료소는 모두 326곳으로 이중 신안을 포함한 여수·고흥·보성·영광·완도·진도·해남 등 8개 시군 도서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전체의 21.17%인 69곳이다. 이들 보건진료소 소장은 모두 여성으로, 이중 54명은 관사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15명(휴직 1명 포함)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출퇴근하고 있다. 문제는 관사 69곳 중 78.25%인 54곳에 CCTV(폐쇄회로)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상벨이 설치된 지역도 2곳 뿐이다. 신안과 유사한 강력범죄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전남도는 최근 도서지역에서 홀로 근무하는 여성 보건진료소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쉼터 CCTV와 비상벨 설치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급 상황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2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 위치를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도서지역 근무자들에게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또 방범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사 내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 구조 체계 구축 여부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건진료직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인사제도 개선 또는 사회 시스템을 활용한 치안 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 외국인노동자에 밀린 월급, 동전 2만2000개로 지급 ‘물’

○경남 창녕군의 한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월급을 동전 2만2000여개로 지급해 논란. ○13일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4명에 따르면 건축업자 A씨가 밀린 월급 440만원을 주면서 100원짜리 동전 1만7505개, 500원짜리 동전 5297

개 동전 2만2802개를 바닥에 쏟은 뒤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 ○외국인 노동자들은 분유한 동전을 신고 농협 등을 찾았으나 “환전해 주기에 동전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는데, 한 상인의 도움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5만원권 지폐로 환전. /연합뉴스

## 평택 토지 매매

초역세권 송탄역 1분 !!

★ 평택 떠오르는 태양 ★

- ① 삼성전자 120만평
- ② 고덕 신도시개발
- ③ 마군기지 이전
- ④ KTX 개통

- 토지 - 141평
- 오피스텔 7개 설계 허가 - (즉시 개발 가능)
- 순수익 - 20억
- 사정상 급매 - (법인채 인수가능)

▣ 매가 → 매가 15억 (용 7억가능)

※ 주인직매 010-6632-9700 010-6834-4800

##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 2개, 방 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5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 5천)

010-6670-9800 010-7384-7800

##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주)대신경매

- ▣ 서구 화정동(주유소)
  - 토 300평, 건 142평
  - 광천터미널 5분 4차선 도로접
  - ▣ 감평가 17억 - 최자가 17억
- ▣ 장성 삼서 (의료시설)
  - 토 3492평, 건 1734평
  - 상무대 입구, 병원 직영 최적합
  - 전 요양병원 운영
  - ▣ 감평가 48억 - 최자가 27억
- ▣ 장성 삼서 (3층 상가 건물)
  - 토 367평, 건 990평
  - 1층(식당)2층(사무실) 2층~3층 (주차정)
  - 상무대 아파트 앞, 식당 밀집지역
  - ▣ 감평가 15억 - 최자가 4억 3천
- ▣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2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번비
  - ▣ 감평가 12억 - 최자가 8억 5천
- ▣ 북구 연제동 (상가주택)
  - 토 84평, 건 155평
  - 새한 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
  - ▣ 감평가 5억 2천 - 최자가 3억 6천
- ▣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
  -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 사무실)
  - 재석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 감평가 7억 9천 6백 - 최자가 5억 5천 7백

062-511-7800

##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670-9800